

## — Sun-93 —

### 진행성 두경부암에 대한 Docetaxel과 Cisplatin 복합화학요법의 제 2상 연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정현\*, 이경우, 최영진, 신호진, 정주섭, 조군제

**목적 :** 진행성 두경부암에서 5-FU와 cisplatin 복합화학요법이 가장 보편화된 치료법으로 되어있으나 이러한 5-FU와 cisplatin 복합화학요법은 생존율을 향상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진행성 두경부암의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치료약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진행성 두경부암에서 docetaxel과 cisplatin 복합화학요법의 전향적 제 2상 임상시험으로써 그 반응률과 부작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 2001년 10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부산대학교병원에 내원한 진행성 두경부암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docetaxel과 cisplatin 복합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이전에 taxane계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화학요법 2회 실시 후 완전반응이나 부분반응이 있는 환자는 1회의 화학요법을 추가로 시행하였고 이후 방사선치료나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4회의 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Docetaxel은 제 1일에  $70 \text{ mg/m}^2$ 를 5% 포도당용액에 희석하여 1시간 정맥주사하였고 cisplatin은 제 1 일에  $75 \text{ mg/m}^2$ 를 docetaxel 정주후 0.9%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1시간 정맥주사하였다.

**성적 :** 부작용과 반응률을 평가할 수 있는 환자는 31명이었다. 전체 반응률은 52% (16/31)였고 이 중 완전반응은 32% (10/31), 부분반응은 19% (6/31)이었다. 두 명의 환자(6.5%)에서 3도의 충성구감소증이 관찰되었으며 5명의 환자(16.1%)에서 4도의 충성구감소증이 관찰되었다. 나른 3/4도의 부작용은 빈혈(6.5%)과 구내염(13%)이었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docetaxel과 cisplatin의 복합화학요법은 진행성 두경부암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높은 반응률과 낮은 부작용을 나타내었다. 대상환자의 수가 적고 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docetaxel과 cisplatin 화학요법이 생존율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향후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추적관찰 기간을 길게하고 더 많은 환자를 포함시킨 3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 Sun-94 —

### 국소 진행성 두경부암의 Taxotere와 Capecitabine의 선행항암화학요법의 치료 효과 (예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이비인후과학 교실<sup>1</sup>, 진단방사선과학 교실<sup>2</sup>

치료방사선과학 교실<sup>3</sup>, 조직병리학 교실<sup>4</sup>, 구강외과학 교실<sup>5</sup>

곽승근, 박남숙, 박수진, 박상운, 신현영, 김성은, 윤환중, 조덕연, 김삼용

박석원<sup>1</sup>, 이오영<sup>1</sup>, 송창준<sup>2</sup>, 조문준<sup>3</sup>, 김진만<sup>4</sup>, 김은석<sup>5</sup>, 정일혁<sup>5</sup>

**배경** 두 경부 종양의 치료는 수술이나 방사선요법과 같은 국소적인 치료가 중요하나 70-80%의 환자가 진단 당시 이미 III, IV기의 국소 진행 암 또는 전이 암으로 진단되며 국소 요법만으로 만족 할 만 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관 보존 등이 어려워 생존율의 향상과 기관 보존을 치료목표로 하여 선행항암화학요법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진행된 두 경부 암 환자에게 Taxotere와 Capecitabine을 투여한 후 시행한 방사선치료의 치료성적을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충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조직학적으로 두 경부 암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제 1일에 Taxotere  $75\text{mg}/\text{m}^2$ 를 정주 하였으며 제 1일부터 14일째까지 capecitabine을  $1250\text{mg}/\text{m}^2$ 을 경구 투여하였다. 항암치료는 3주마다 반복하였으며 2회 시행 후 반응이 있는 환자는 추가적으로 1회 투여 후, 반응이 없는 환자는 바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였다. 결과 선행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12명에 대하여 효과판정을 실시하였다. 12명 모두 남자였으며 연령은 27세부터 75세까지로 중앙연령은 49세였다. 발생부위는 Nasopharynx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larynx가 3명 기타 tonsil과 hypopharynx가 각 1명이었다. 중앙 추적기간은 4개월(2-12개월) 이었다. 조직학적으로 편평 상피 암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반응은 완전관해가 1명(8.3%), 부분관해가 9명(75%), 불변은 2명(16.7%)이었다. 독성으로는 백혈구감소와 혈색소감소가 각각 4명(33%), 오심, 구토가 3명(25%), 점막염 2명(16%), 신경증 1명(8%), 설사가 1명(8%) 이었으나 치료를 중단할 독성은 없었다. 결론 본 연구의 추적기간과 대상군이 적은 한계가 있지만 진행된 두경부암 환자에게 시행한 Taxotere와 capecitabine의 유도화학요법 치료로 12명 중 10명이 반응을 보여 추가적인 방사선치료를 통해 국소 조절을 증가시키고 원격전이를 억제하면서 기관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